

## [민사소송 항소에서 2021.6.28 강간, 강간치상, 상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 ③ 2021.6.28자 강제적인 성관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 → 2021.6.28자 강제적 성관계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항목별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지 못했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자료만 늘어놓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정황, 산부인과에 늦게 가게 된 경위, 강제적 성관계와 질내 출혈과 자궁경부 미란과 염증 진단에 대한 연관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청구 명을 '강제적 성관계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정합니다.

#### 구체적 사건 정황

원고는 피고가 피트니스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응원 차 2021.6.26에 창원에 방문하였습니다. 2021.6.27 피고가 대회를 마쳤고, 2021.6.28 원고의 서울행 비행기는 오후 4:30경까지 김해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피고의 오피스텔은 김해공항까지 차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2021. 6.28 오후 1시~3시경까지 원고와 피고는 초밥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원고가 서울 행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것과, 대회기간 동안 성관계를 못한 채로 원고가 서울로 올라가는 사실에 급작스럽게 원고에게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머리를 잡아 침대에 원고가 무릎을 꿇게 하고 강제로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입에 갖다 대며 성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그런 피고와 성관계가

하고 싶지 않았고,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원고를 눕혀 피고가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당시 시간이 너무 촉박해, 피고와 힘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시간을 더 뺏기지 말고 얼른 공항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성관계 시작에는 크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엔 원고의 몸이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아 피고가 강하게 성기를 삽입하니 피고의 성기가 원고의 자궁경부에 닿아 너무 아팠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프다는 말에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너무 아픈 고통이 계속되는데 피고가 계속 세게 움직여서 피고의 배꼽주변을 원고의 두 손바닥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그래도 피고가 계속 거세게 움직여서 원고는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수차례 소리치며 피고의 배꼽과 명치, 가슴 등의 피고의 상반신을 5~10번가량 있는 힘껏 두 팔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버티다 갑자기 피고가 움직임을 멈추었고, 아래를 보니 침대에 깔아 놓은 수건에 빨강게 지름 5cm이상 원고의 피가 흘러 있었고, 수건 아래로 침대 시트에도 피가 묻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많은 피를 보고 당황스러워 얼어버렸습니다. 피고의 성기에도 피가 온통 묻어 있었고 이 상황이 그저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성관계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원고의 손목을 잡고 화장실 샤워부스 쪽으로 데려가 원고를 세우고 계속 성관계를 했습니다. 원고는 얼어서 그냥 이 시간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피고는 원고의 피가 묻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바로 돌린 후 침대시트의 피를 닦기 바빴습니다. 그거 치우는 게 더 중요하냐고

원고가 묻자 그제야 피고는 원고의 몸이 괜찮은 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져 일단 바로 짐을 챙기고 피고의 차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1시간가량의 이동시간동안 원고가 그렇게 많은 피를 하혈한 원인이 무엇인지 걱정하며 인터넷에 검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왜 아프다고 소리치고 미는데 성관계를 안 멈추냐고 화냈더니, 피고는 아까와 다른 사람인 듯 미안하다고 말하며 원고의 몸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다 책임지고 감수하겠다고 말하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치를 보이고 원고가 제시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열심히 운전했습니다.

다시보는 피고의 정상적 면모에 이 사람은 다만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서 피고의 일방적인 성적 행동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일단은 서둘러 공항에 도착하고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고 피고와 소통했습니다.

그 후로 원고의 몸에서는 다시 하혈한 적이 없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의 이기적이고 폭력적 면모에 대해 고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피고는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여자를 자신의 집에 들여 밤새 같이 있고, 원고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고로부터 당한 모든 성착취 사건들이 원래 피고의 문란하고 이기적인 본성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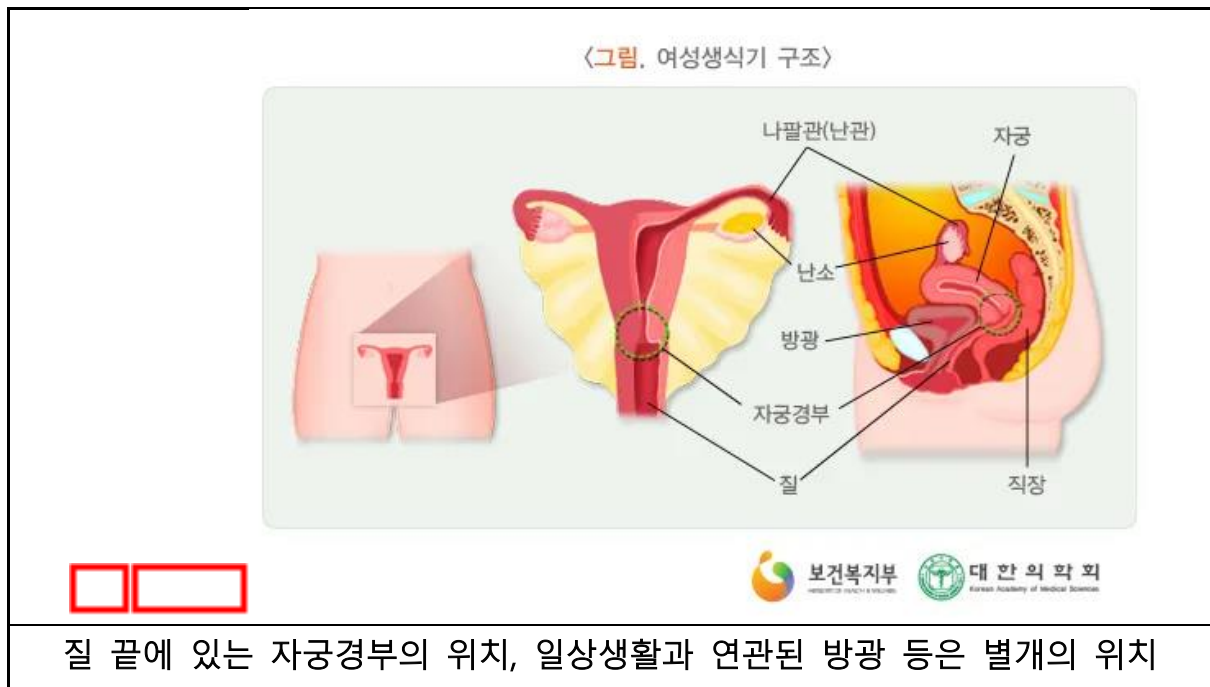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당했던 모든 사건들이 자꾸 떠오르고 입맛이 없어지고 살이 8kg이상 빠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거나 가족들 몰래 이불속에서 우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난생처음 정신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고 산부인과도 뒤늦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자궁경부의 신체적 특징과 원고의 자궁경부 출혈 원인에 대하여

2021.6.28 원고가 성관계 도중 하혈한 원인은 강압적인 성관계로 준비되지 않은 원고의 질에 피고가 성기를 원고의 질 끝까지 세게 밀어 자궁경부에 통증을 유발시켰으며, 피고의 성기가 세게 원고의 자궁경부를 강타하여, 그 충격으로 자궁경부의 살이 찢어져 피가 출혈한 것입니다.

자궁경부는 여성의 질 끝에 위치하여 아무 도구 없이 육안으로는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부위이고, 방광과 요도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위입니다. 다른 원고의 건강 상 문제가 아닌 폭력적 성관계로 인한 마찰적 충격의 원인으로 통증이 유발되고 피가 출혈한 것이므로, 다른 때에는 출혈양상과 통증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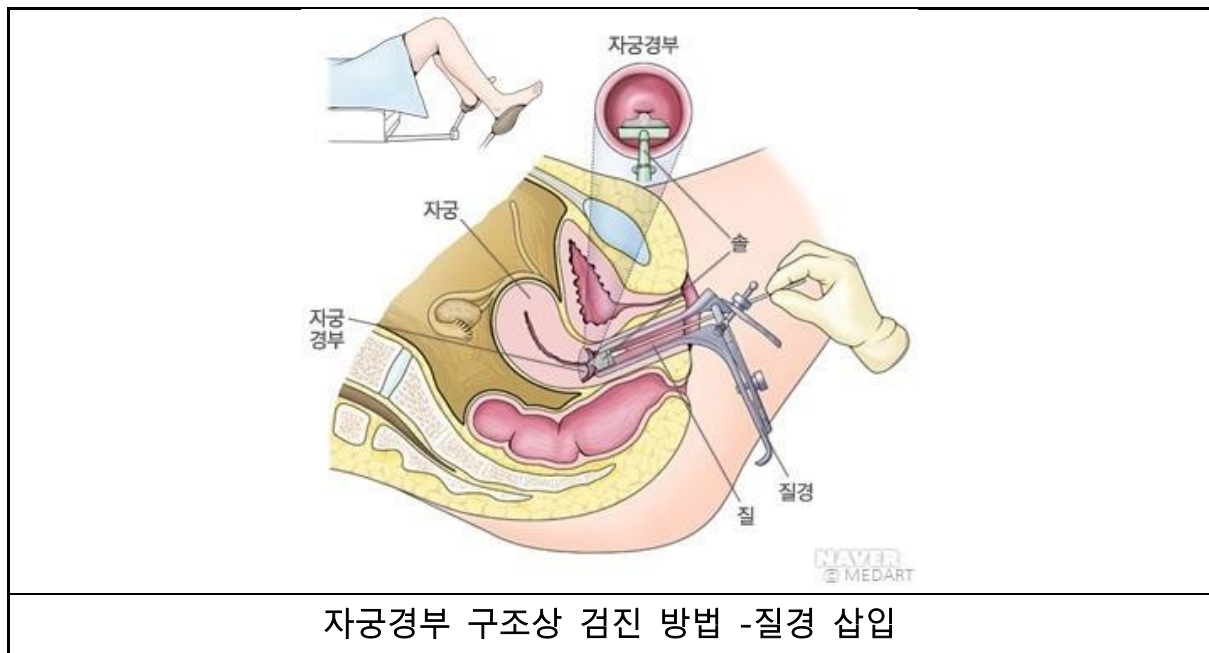


원고는 2021.7.27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 검사 염증소견, 자궁경부 미란 진단(갑제5호증, 제20호증 1면)을 받았습니다. 자궁경부 미란은 자궁경부 표면이 결손되거나 벗겨지면서 그로 인해 세균감염이 쉬워져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한달 뒤가 아닌 사건 직후 바로 병원에 갔다면 '자궁경부 파열'과 같은 더 큰 진단이 나왔을 것입니다.

원고는 2023.5.25 산부인과에 다시 방문하여 같은 자궁경부 검사를 받아 정상 진단(갑제 20호증 2면)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자궁경부는 만성적 건강 문제가 없습니다. 2년전 2021년 7월 자궁경부의 미란과 염증소견을 받았던 것은 피고로부터 폭력적인 성관계로 자궁경부에 극심한 외상을 당했었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지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는 수건과 침대시트의 피를 바로 인멸해버렸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처가 난 곳이 육안으로 보이고 촬영이 가능한 곳이었다면 사진을 남겨 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궁경부 지름은 2.5cm밖에 되지 않

으며, 질 입구 지름은 더 작으며, 자궁경부의 구조상, '질경'이라는 전문장비를 질에 삽입 하여야만 자궁경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구조적 특성상 증거를 남기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 여성의 비흥분시, 흥분 시 달라지는 질길이에 대한 연구결과

여성의 질은 흥분에 따라 질 길이가 달라집니다. 1966년 워싱턴 대학의 마스터스, 존슨 박사는 미국인 표본 186명으로 여성의 질길이가 비흥분시 7~8cm, 흥분시 10~12cm로 길어진다는 연구결과를 밝혔습니다. 2021년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 리사 란킨(Lissa Rankin)도 여성의 질은 3-4인치(8~10cm)이며, 흥분 시 최대 두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2021.6.28 피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동안, 원고는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므로, 질길이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성기가 원고의 자궁경부에 닿고도 남게 되어 유달리 자궁경부의 통증이 유발된 것이고, 정도 이상으로 피고가 성기를 수차례 세게 밀어 자궁경부가 파열되

어 과도한 양의 출혈이 일어난 것입니다.

흥분에 따른 질 길이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와, 아프다고 소리치며 피고를 수차례 밀어냈음에도 원고의 질에 계속 성기를 강하게 삽입한 피고로 인해 여성의 질 끝에 위치한 자궁경부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며,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  
다. 2021.6.28자 강제적 성관계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갑 제20호증 원고의 2021, 2023년 자궁경부 세포병리 진단 보고서

원고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을 못해, 사건으로부터 한달 후에야 2021년 7월 27일 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 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원고는 자궁경부 미란, 자궁경부 극심한 염증 소견 진단을 받았습니다(갑 제5호증, 갑 제20호증 1면).

그리고 동일한 자궁경부 검사를 2023년 5월 26일 받은 결과, 상처도 없으며 건강 이상 소견 없음 진단을 받았습니다(갑 제20호증 2면).

그러므로 원고는 만성적으로 자궁경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2년 전 자궁경부 미란, 극심한 염증 진단이 나온 이유는, 한달 전 피고의 강제적 성관계로 자궁경부 상처가 발생해 과다한 피를 출혈했고, 상처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갑 제21호증 당시 정황 사진

갑 제21호증은 원,피고가 오후 1:15분 경부터 초밥뷔페에서 식사를 하는 사진, 오후 2시에 촬영된 식당 내 마지막 사진, 초밥뷔페와 피고의 오피스텔의 거리, 오

후 2:40~3:00 경 피고 오피스텔에 도착해 짐을 싸기 시작한 원고의 정황, 급하게 성관계를 시도한 피고에 의해 강제적 성관계 및 상해의 사고가 발생한 정황, 피고 오피스텔과 김해공항과의 거리, 김해공항에 도착한 오후 4:25 사진이 있습니다.

원고가 서둘러 공항에 가야 하는 시점에 사건이 일어났고, 시간이 임박하여 공항까지 피고의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던 타지에서의 원고 상황, 사건이 급박하여 증거를 남길 수 없던 상황 등을 입증합니다.